

Títol: 괜찮아!

(Extret del llibre “살아온 기적, 살아갈 기적”)

(.....)

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.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.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, ‘괜찮아’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

2002 년 월드컵 4 강에서 독일에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.

“괜찮아! 괜찮아!”

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.

“괜찮아! 괜찮아!”

‘그만하면 참 잘했다’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.

‘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’는 용서의 말.

‘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’는 격려의 말.

‘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’는 나눔의 말.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.

‘괜찮아’.

그래서 세상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될 때. 죽을 듯이 노력하고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.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.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_ ‘괜찮아! 조금만 참아.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.’

아, 그래서 ‘괜찮아’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.

장영희